



5곳~ 문민정부 차관 이상 한명도 못내

<6>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및 조약, 재외국민의 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외교통상부의 인적 구조는 외무부 시절부터 외무고시 출신으로 형성된 순혈주의가 탄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또 미국과 일본에서 근무·연수한 고위 외교관들의 그룹인 '워싱턴 스쿨'과 '저팬 스쿨'은 외교통상부의 양대 인맥으로 꼽힌다.

이러한 인적 구조의 특성과 외교관이라는 독특한 지위에 따라 영남 정권 아래서 차별받던 호남 출신들의 외무부 선호도는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장관을 비롯, G7(차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외교정책실장, 의견



국민의 정부서 첫 장관 배출...현 재외공관장은 35명

장, 외교안보연구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등 최고위직은 영남 정권 아래서 호남 출신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제5공화국부터 문민정부까지 영남 정권에서의 외무부장관 9명 가운데 서울 출신 3명(최광수, 최호중, 한승주), 북한 출신 3명(노신영, 이범석, 공노명), 영남 출신 3명(이원경, 이상욱, 유종하) 등으로 나타났다. 영남 독식이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호남 출신은 없었다.

호남 출신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에서 탄생했다. 5명의 외교통상부장관 가운데 전남 출신의 이정민, 최성홍씨가 수장으로 기용된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전북 출신 윤영관씨가 장관으로 기용됐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차관은 영남 출신 인사들이 주를 잡았다. 제5공화국부터 문민정부까지 12명의 차관 가운데 영남 출신은 무려 8명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호남 출신은 단 한명도 없었다.

반면, 국민의 정부에서의 외교통상부 차관 및 차관급 인사 6명 가운데 호남 출신 인사는 3명(최성홍, 한덕수, 황두연)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정부 차관급 인사에서 호남 인맥은 다시 배제되고 있다. 13명의 차관 및 차관급 인사 가운데 호남 출신은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유일했다.

한편, 현 외교통상부 내의 호남 인맥은 타 부처에 비해 탄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본청 근무 부이사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74명 중 호남 출신은 16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김한수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복음)을 필두로, 조희용 대변인(영암), 임근형 구주국장(광주), 오갑열 재외동포영사대사(광주), 임한택 조약국장(무안), 이범연 의견심의관(광주), 정환성 통상전문관(광주), 신종원 다자통상협력관(곡성), 이대희 외교정보관리심의관(목포) 등 9명으로 나타났다.

재외공관장 가운데 호남 출신은 35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출신은 정우성 벨기에·구주연합 대사(영광), 석동원 홍콩총영사(광주), 손상하 말레이시아 대사(영암), 기현서 칠레대사(광주), 김선홍 침타오 총영사(광주), 김현명 후쿠오카 총영사(광주), 이준재 아랍에미리트 대사(광양), 서영진 히로시마 총영사(화순), 최충주 밴쿠버 총영사(광주), 김병권 파라과이 대사(장성) 등 15명으로 집계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하얀산'에 바친 도전과 희생



정후식
정치부 차장

만년설 뒤덮인 히말라야의 '하얀 산'은 산악인들에게 동경과 흠모의 대상이다. 하지만 그곳을 지배하는 폭풍설과 혹한, 눈사태의 굉음, 낙석과 낙빙, 곳곳에 도사린 크레바스(빙하의 갈라진 틈)는 도전자들을 추는듯하게 한다. 경치의 30%에 불과한 희박한 산소는 생명까지 위협한다. 때문에 이런 악조건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죽음의 지대'를 넘어선 산악인들의 개척정신과 불굴의 의지는 일반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준다.

올해도 네팔 히말라야에는 많은 한국 원정대들이 찾았다. 성과도 컸다. 열 손가락이 없는 광주 출신 장에 산악인 김홍현(44·송원대산악회OB)씨는 16일 세 번째 도전만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다. 스키 선수로 활약하다 지난 1991년 매킨리(6,194m) 단독 등정 중 동상에 걸려 양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했던 그의 등정은 좌절을 모르는 강한 집념의 산물이다. 함께 등정 "희망을 위한 2007 한국도로공사 에베레스트·로체원정대" 김기곤(35)·유준형(37·광주시산악연맹) 대원은 신발끈 조차 혼자 묶기 힘든 그의 손이 되어 고정로프를 끌어주며 등반을 도와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들 두 대원은 지난 4일 로체(8,516m)봉에 이어 에베레스트까지 8,000m급 2개봉 2007년 시즌 연속 초등정에 성공했다.

이들이 설치한 고정로프는 각 국 원정대의 생명줄이 되었다. 허영호(53)씨는 17일 세 번째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고, 18일에는 60세 이상 산악인들로 구성된 한국산악회 '실버원정대'의 김성봉(66)·이장우(63)씨가 같은 루트로 정상을 밟아 한국 최고령 등정 기록(기존 47세)을 갈아치웠다.

중국(티베트)쪽 북동쪽 루트로는 16일 국내 여성 스포츠클라이밍 1인이었던 고미영(40)씨, 17일에는 경남 양산의 이상배(53)씨가 '삼수(三修)'봉에 등정의 감격을 맛보는 등 20일까지 한국인만 9명이 정상에 도달했다.

그러나 사카르파라(에베레스트의 네팔 명칭)의 여신은 올해도 한국의 두 젊은 산악인을 '하얀 침묵'속으로 데려가고 말았다. 16일 남서벽에 '코리안 신루트'를 개척하다 정상을 눈앞에 두고 산악인 이현조(35·전남대산악회OB)씨, 그는 8,000m급 5개 봉을 등정한 광주·전남 산악계의 유망주였다. 강한 체력과 최고의 등반기술, 동료애, 겸손함까지 겸비한 참산악인이었지만 치던 실벽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 지역 산악계를 슬픔에 잠기게 했다. 광주·전남 산악인들은 6번째 히말라야 원정의 희생자다.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무리한 시도였다 등 말들이 많다. 하지만 '눈'이 집착해온 국내 해외원정 관행에서 벗어나 '눈길'에 나선 그의 도전정신은 길이 기억될 것이다. 영원한 산사람이 되어 버린 고인의 명복을 빈다.

/who@kwangju.co.kr

내달 파리총회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분수령

현대·기아차 그룹, 98개 회원국 공략 총력전 나서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세계박람회기구(BIE)의 98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마지막 총회가 한달 뒤인 내달 18~1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오는 11월 27일 최종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열리는 총회인 만큼,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그룹은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내달 BIE의 제 141차 총회를 앞둔 민간외교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20일 일정에 따르면 파리에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별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그룹은 총회 기간 9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동시에 내달 BIE 총회 기간 '여수 세계

박람회'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향을 중간 점검하고, 연말 최종 총회에서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새 전략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위 고문을

맡고 있는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정 회장은 "국익 창출을 통한 국가·민간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것이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 기업이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동영 前의장, '김정일 면담' 뒷얘기 공개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이 2005년 6월 17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 뒷얘기를 자신의 저서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들'을 통해 공개했다.

정 전 의장은 면담이 성사된 6·17 당일 아침에서야 장소와 시간에 대한 연결을 전해들은 상황을 전하면서 면담 장소인 대동강 초대소에 도착하자 김 위원장이 20m 전방 흙 중앙지점에서 딱 버티고 서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고 회고했

다.

정 전 의장은 김 위원장이 고 김일성 주석의 유혼임을 상기시키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 대해 '각하라고 못 부를 이유가 없다. 각하라고 부를까요'라고 언급한 대목, '중대 제안'이었던 '200만개의 직접 송전 구상'에 대해 신중한 답변을 내놓은 부분 등 이미 공개된 대목 외에도 당시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소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북 인사 4·19국립묘지 첫 참배 서울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보상 대책위원회' 홍선욱 위원장 등 북한측 인사들이 19일 오전 서울 수유리 4·19 민주묘지를 방문, 참배하기 위해 기념탑 앞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 /연합스

이태리가구 전문점

The 100% Made In Italy

이태리 디바니 DIVANI 소파를 독점수입 판매합니다.

- 등받이 각도 조절.바닥부분 리모콘으로 침대기능
- 4가지 모델과 이태리만의 칼라 30% 세일 판매
- 홍스페이스는 호남유일의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 입니다.

● 1,2층 : 명품가구 ● 3~5층 : 엔틱가구 ● 지하 : 50% 세일가구

www.hongspace.kr
www.hongspace.kr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구도청옆) 홍스페이스 빌딩 062)226-7567

단기간에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고중 공식지정 영어캠프/연수

영어캠프

- 참가대상 : 초·중생 개인 및 그룹
- 캠프기간 : 2007. 7. 20~2007. 8. 31 (6 주코스)
- 접수기간 : 2007년 5월 31일 까지(선착순 조기 마감)
- 캠프장소 : UR(U)iversity of Regina Carmeli(필리핀)

최고의 목표를 첫째는 안전, 둘째가 학업능력향상, 셋째가 문화체험이라는 순서를 정하고, 영어능력향상을 배가시키고 동시에, 즐거움속에서 영어와 친숙해지고 영어적 사고를 배양하며, 캠프기간 후에도 영어 공부에 대한 학습의욕을 고취시켜줄 캠프입니다.

"나는 캠프가 아닌 공부하는 캠프"

학부모임들의 바램에 충실하고, 영어캠프의 주목적이 실제 영어실력향상에 있다는 사실을 각인하여 관광형태의 문화체험형태를 철저히 따라하고 4시간의 정규 수업, 2시간의 발음 및 문법 수업, 2시간의 영작 수업, 2시간의 단어 암기 등 총 1일 10시간의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여, 실질적 영어 실력향상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인 수업 진행
한국학생들만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닌 필리핀 정규 수업과정(초등학교-고등학교)에 레벨별로 배치되어 수업을 받게 됩니다. 수업은 전부 영어로 진행되며, 수업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과목으로 한정.

● 학생 3명당 1명의 원어민 담임 선생님이 지정 정규수업 이후 취침시간까지의 시간을 같이 하며 정규 수업시간의 복습과 예습, 영작 및 단어 암기와 개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점검

● 기숙사 생활을 통한 Total Care
● 홈페이지를 통한 학생 생활상 보고
●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자녀분들의 생활상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

영어연수

- 연수대상 : 중학교 이상 성인까지
- 본인이나 스승에 대한 열의가 있으며, 자기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함
- 연수기간 : 4주, 6주, 8주 과정(1달 단위) 연장 가능(연수기간은 전공 자유로이 선택)
- 연수장소 : 홀스타이(마닐라) 오티카시

단기간에 집약적인 영어 학습을 통하여 실질적인 영어능력의 향상을 원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최고의 목표를 학업능력향상으로 정하고, 문화체험 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들을 원천 배제하고, 수준별 수업을 통해 학생의 level에 맞는 철저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학생의 영어 능력을 신장 시켜 주는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정은 Grammar, Reading, 주제를 토대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 선생님이 매일 수업을 진행합니다. TOEFL, TOEIC, IELTS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 있으며, Reading, Speaking, Writing 분야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 원어민과 맞춤형 수업진행으로 효율을 극대화

● 원어민 선생님들의 자질 우수

● 프로그램 우수

● 선생님이 방문 수업, 이동시간의 절약 및 안전 보장

참가자 특별 이벤트

캠프 및 연수 참가자 전원에게 전화영어 1개월 무료수강

한국고중 회원특별 할인
한국고중 회원 자녀분들의 신청시 특별할인!!

상담 및 문의: 1588-8010
www.wawcamp.com

한국고중 전화영어교육 전문회사
특 별 후 원 : 光州日報社 한국고중